

교수회 의장, 총장 면담 보고

교수회 의장의 요청으로 지난 16일 총장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면담에서 교수회 의장은 우리 대학의 최근 현안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을 전달, 촉구했습니다. 면담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총장 면담 | 6월 16일(금) 10:00 총장실

1) 대학 경영의 방향

교수회 의장은 총장은 대규모 모집중지, 교원의 소속이동, 글로컬 사업 등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학교 경영의 방향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교수회 의장은 올해 들어 대규모 모집중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도대체 우리 대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총장은 보직자 회의, 학장 간담회를 포함하여 구성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은 구성원 입장에서는 학교 경영의 방향에 대해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이뤄지는 학과조정이나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단대 편제 작업을 구성원이 보면 우리 대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방향이며 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과대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 대학이 오래 발전하고 싶은 분야를 새로 세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연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의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구성원들에게 한다거나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총장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지난 1년 정책에 대한 객관적 검토

교수회 의장은 총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공도를 객관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장과 교무처가 각 학과와 전공에 요구한 개설학점 축소나 교차설강의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교수회 의장은 총장의 정책 성공도 평가가 중요한 시점인 상황임을 환기하며 교무처에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총장은 이와 같은 교수회 의장의 요구에 대해 개설학점 축소, 교차설강 정책이 학과와 전공의 벽을 낮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의장의 요구대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효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3) 급여 인상 검토

교수회 의장은 총장과 법인이 전임교원의 급여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회 의장은 사립대학 교원의 급여는 공무원 임금 인상에 비례하여 인상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제가 우리 대학 내부에서 전혀 토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급여 인상은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은 교수회 의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분명히 학생 입학이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급여 인상이 과연 책임 있는 판단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총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교수를 더 뽑아야 하고 시설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했습니다.

2. 교수회 요구 사항

이 외에 교수회 의장은 교내연구비 예산 증가, 9대 교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하고 요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아래와 같이 주요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 대규모 모집중지, 교원의 소속이동이 우리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 총장은 우리 대학을 살릴 학교 경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밝혀라!
- 개설학점 축소, 교차설강은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 총장은 주요 정책의 성공도를 면밀하게 검토, 공개하고 그 결과를 향후 경영에 반영하라!
- 전임교원의 급여 인상은 시혜가 아니다. 총장은 재임 중에 급여 인상을 단행하라!